

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

VIP 리포트

한중 수교 23주년 의미와 시사점

－ 對中 협력 강화 속 중국發 리스크 대응 전략 마련 필요

발행인 : 강인수
편집주간 : 김동열
편집위원 : 주원, 이부형
발행처 : 현대경제연구원
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4
Tel (02)2072-6305 Fax (02)2072-6249
Homepage. <http://www.hri.co.kr>

-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.
-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.
-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, 현대경제연구원 통일연구센터(02-2072-6245)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목 차

■ 한·중 수교 23주년 의미와 시사점

- 對中 협력 강화 속 중국發 리스크 대응 전략 마련 필요

Executive Summary	i
1. 23주년을 맞은 한중 수교	1
2. 한중 경제 교류 현황	2
3. 시사점	9

< 요약 >

■ 23주년을 맞은 한중 수교

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 경제 교류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. 반면 최근 우리 경제의 對 중국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중국발 리스크의 국내 경제로의 전이 우려도 커지고 있다. 이에, 한중 수교 후 지난 23년간 양국 간 경제 교류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.

■ 한중 경제교류 현황: 對 중국 의존도 심화

1992년 한-중 수교 이후 현재까지의 양국 간 경제 교류 현황을 교역, 투자, 금융 협력, 기술 협력, 인적 교류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살펴본 결과 양국 간 경제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경제의 對중국 의존도가 지속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.

(교역) 한중간 교역 규모가 지난 22년 간 37배 증가했다. 한중 간 교역 규모는 1992년 63.8억 달러에서 2014년 2,353.7억 달러로 약 37배 증가했다. 더욱이, 한국의 수출총액 중 對 중국 수출 비중이 1992년 3.5%에서 2014년 25.3%로 확대되면서 중국이 최대 수출 상대국으로 부상했다. 한편, 석유화학, 철강, 철강제품, 기계, IT, 자동차, 조선, 정밀기기 등 8대 수출 주력 산업의 한중 간 수출 경합도가 모두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, 중국이 한국보다 비교 우위를 보이는 산업이 2000년 1개에서 2013년 3개로 늘어나는 등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지속 향상되고 있다. **(투자) 지난 22년 간 한국의 對中 직접투자는 17배, 중국의 對韓 직접투자는 1,100배 증가했다.** 한국의 對 중국 직접투자는 1992년 2.2억 달러에서 2014년 37.5억 달러로 연평균 14.0% 증가했다. 업종별로는 제조업 중심의 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비스업 투자가 확대되었다. 또한, 중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1992년 0.01억 달러에서 2014년 11.9억 달러로 연평균 약 38%씩 증가하였다. **(금융 협력) 중국계 자금의 국내 유입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.** 한중 간 금융협력은 2000년 초부터 시작되었으나, 2008년 이후 원-위안 통화스와프 체결, 원-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,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(AIIB) 가입 등으로 양국 교류가 가속화되고 있다. 이에 따라 주식 및 채권 시장 내 국내 유입 전체 외국인 자금 중 중국계 자금 비중이 2009년 각각 3.7%, 9.7%에서 2014년 31.9%, 46.5%로 급증하였다. **(기술 협력) 한중 기술 무역 규모는 19배 증가했다.** 한중 간 기술 무역 규모는 2001년 1.9억 달러에서 2013년 36.3억으로 약 19배 증가했다. 對 중국 수출 규모는 동기간 1.9억 달러에서 34.2억 달러로 18배 증가, 기술무역 흑자 규모도 동기간 1.8억 달러에서 32.0억 달러로 확대되었다. **(인적 교류) 양국 간 인적 교류도 15배 증가했다.** 양국 간 인적 교류는 1995년 70.8만 명에서 2014년 1,030.9만 명으로 약 15배 증가했다. 방한 외국인 중 중국인 비중은 2014년 기준으로 약 50%에 달한다. 對 중국 관광수지는 2012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어 2014년 현재 78.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.

■ 시사점

한중 경제협력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국내 경제의 대중 의존도 심화에 따른 중국발 리스크 전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. **첫째**, 한중 간 경제협력의 지속 확대를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. **둘째**, 최근 중국 경제의 둔화에 따른 중국발 리스크 대응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. **셋째**, 혁신형 고부가·고기술 제품 개발 등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미래 유망 산업 육성도 시급하다. **넷째**, 양국 간 인적 교류의 질적 개선을 통해 여행수지 등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1. 23주년을 맞은 한중 수교

○ 올해로 23주년을 맞은 한중 경제 협력이 지속 강화되는 가운데, 최근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지속 등 중국발 리스크의 국내 경제 파급 우려가 증대

- 1992년 수교 이후 한중 간 경제 협력이 지속 강화

- 한중 간 경제 협력은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2015년 8월까지 지난 23년간 경제 교류가 지속 확대
- 특히,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원-위안 간 통화 스와프 체결, 2014년 한중 FTA 타결 등 양국 간 경제 협력이 강화

- 한편, 최근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등 중국발 리스크의 국내 경제 파급 우려도 확대

- 중국 경제가 지난 2012년 2/4분기부터 2015년 2/4분기까지 13분기 연속 7%대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, 수출 경기 급락뿐 아니라 최근 들어 증시 폭락 등 금융 불안이 가중
- 이에 따라, 對 중국 의존도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 국내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

○ 이에 한중 수교 후 23년 간 양국 간 경제 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

<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관계 >

시 기	양국 관계	의미
수교 초기 (1992~1997)	상호 보완적 관계 및 선린우호 관계	- 경제·통상, 문화 교류 개시
발전 단계 (1998~2007)	협력적 동반자 관계 및 전면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	- 경제 협력 강화
견고화 단계 (2008~2012)	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	- 경제 협력뿐 아니라 안보, 외교, 정치, 문화 등 다방면에서 파트너십 구축
도약 단계 (2013~현재)	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	- 경제의 질적 협력 관계 강화 도모 - 정치 및 외교적 소통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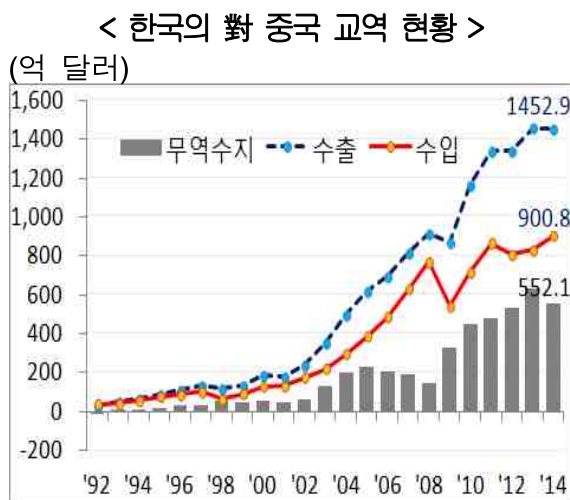
자료 : 내외신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정리.

2. 한중 경제 교류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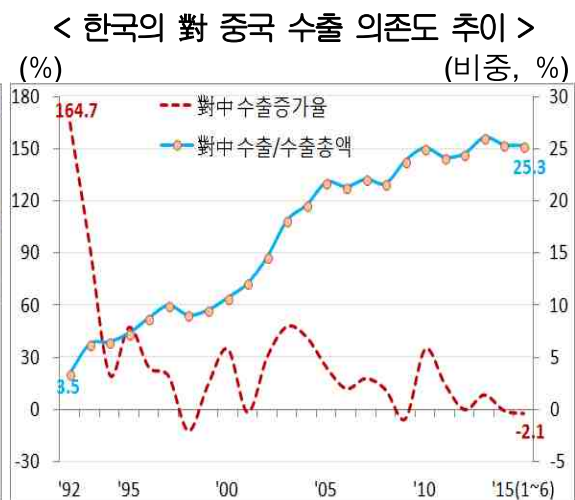
① 교역 : 한중 간 교역은 1992년 대비 2014년 약 37배 증가

○ 한중 간 교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중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

- 한국의 對 중국 교역은 지난 22년간 36.9배 증가
 - 한국의 對 중국 수출은 1992년 27억 달러에서 2014년 1,453억 달러로 지난 22년 간 연평균 20.0%씩 성장
 - 對 중국 수입도 동기간 37억 달러에서 901억 달러로 연평균 약 16.0%씩 증가
 -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992년 11억 달러 적자에서 2014년 552억 달러 흑자로 전환
- 한편, 한국의 對 중국 수출 의존도가 심화되는 가운데, 최근 對 중국 수출이 감소하는 양상이 지속
 - 한국의 총수출 중 對 중국 수출 비중은 1992년 3.5%에서 2015년 상반기 25.3%로 지속 확대
 - 하지만, 對 중국 수출 증가율은 동기간 약 165%에서 -2.1%로 감소하는 등 최근 들어 對 중국 수출 경기가 지속 악화



자료 : WTO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.
주 : ()는 억 달러 기준.



자료 : 무역협회.
주 : 수출의존도란 수출 총액 대비 對 중국 수출 비중.

○ 한편, 글로벌 수출 시장 내 중국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양국 간 주력 산업 수출 경쟁이 심화

- 글로벌 시장 내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지속 상승

- 2000년 대비 2013년 한국의 글로벌 수출 시장 경쟁력이 향상된 산업은 철강과 IT 분야로 전체 8개 산업 중 2개에 불과
- 반면, 중국은 동기준 철강, 철강제품, 기계, IT, 조선 등 5개 산업 분야가 경쟁력이 개선
- 한편, 중국이 한국보다 경쟁력 우위를 보이는 산업은 2000년 철강제품뿐이었으나, 2013년에는 철강, 철강제품, 기계 등 3개로 늘어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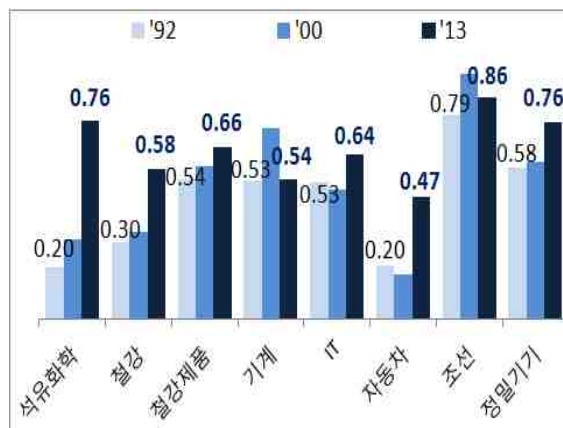
- 주요 산업별 한중간 수출 경합도¹⁾는 8대 산업 모두 상승

- 한중간 수출 경합도는 2013년 조선(0.86), 정밀기기(0.76) 및 석유화학(0.76), 철강제품(0.66), IT(0.64), 철강(0.58), 자동차(0.47)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남
- 특히, 석유화학(0.20→0.76), 철강(0.30→0.58), 자동차(0.20→0.47), 정밀기기(0.58→0.76) 등 국내 수출 주력 산업과의 경쟁이 심화

< 주요 산업의 한중의 무역 특화지수 비교 >

구분	한국		중국	
	2000	2013	2000	2013
석유화학	-0.60	-0.54	-0.45	-0.81
철강	0.00	0.04	-0.45	0.29
철강제품	0.33	0.14	0.53	0.69
기계	0.18	0.11	-0.12	0.38
IT	0.13	0.30	-0.05	0.12
자동차	0.81	0.75	0.11	-0.12
조선	0.95	0.91	0.66	0.87
정밀기기	-0.56	0.35	-0.07	-0.18

< 주요 산업별 한중간 수출 경합도 추이 >



자료 : 한국무역협회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.

자료 : UN COMTRADE.
 주 : 1) 8대 주력산업은 '13년 기준 총수출의 약 76%
 2) 주력산업은 HS 코드 2단위 기준으로 27(석유화학), 72(철강), 73(철강제품), 84(기계), 85(IT), 87(자동차), 89(조선), 90(정밀기기) 등으로 분류.

1) 국가간 수출상품의 경합관계를 나타내는 수출경합도지수(Export Similarity Index)는 $ESI_{ab} = \sum_{i=1} Min(X_a^i/X_a, X_b^i/X_b)$ 로 정의됨. 단, X_a^i/X_a 는 a국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i상품의 수출비중, a, b 양국의 수출구조가 유사할수록 i 상품의 수출비중이 서로 비슷한 값을 가지게 되어 수출경합도지수는 커짐. 수출경합도가 1이면 양국의 수출 구조는 완전 동일.

② 투자 : 지난 22년 간, 한국의 對中 직접투자는 17배, 중국의 對韓 직접투자는 1,100배 증가

○ 한국의 對 중국 직접투자가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지속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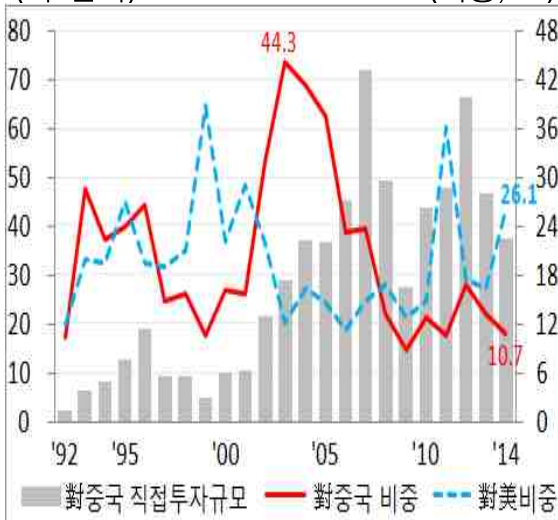
- 한국의 對 중국 직접투자는 1992년 대비 2014년 약 17배 증가

- 한국의 對 중국 직접투자 총액은 1992년 2.2억 달러에서 2014년 37.5억 달러로 연평균 약 14%씩 증가
- 하지만, 직접투자 총액 중 對 중국 직접투자 비중은 1992년 10.4%에서 2003년 44.3%로 급증. 이후 지속 둔화되며 2014년 현재 10.7%로 감소

- 한편, 업종별로는 제조업 중심의 對 중국 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, 서비스업 투자가 확대

- 제조업에 대한 한국의 對 중국 직접투자 비중은 1992년 89%에서 2014년 약 78%로 다소 축소 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
- 반면,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동기준 8.9%에서 21.1%로 지속 증가

<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중 중국 비중 >
(억 달러) (비중, %)



자료 :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.
주 : 신고금액 기준.

< 업종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중 중국 비중 >
(비중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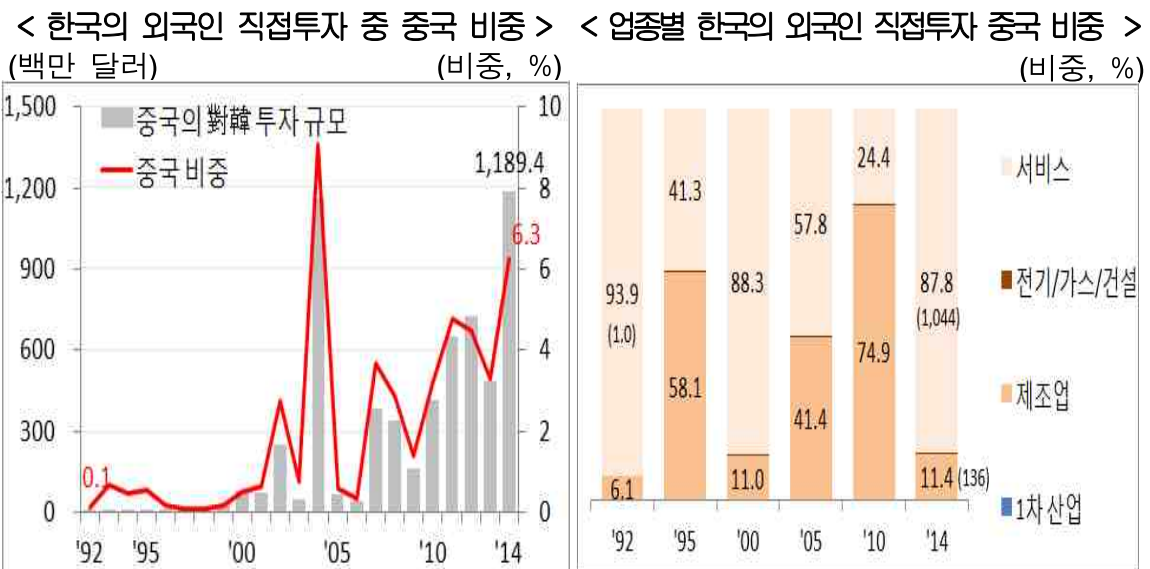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.
주 : ()는 억 달러.

○ 또한, 중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

- 중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는 1992년 대비 2014년 약 1,100배 증가
 - 중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 총액은 1992년 0.01억 달러에서 2014년 11.9억 달러로 연평균 37.6%씩 증가
 -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총액 중 對 한국 직접투자 비중은 2004년 9.1%로 정점을 기록한 후 하락하다 2007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세로 전환. 2014년 현재 6.3%로 개선

- 한편, 업종별로는 2011년부터 서비스업 중심의 투자가 가속
 - 제조업의 경우, 중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 비중은 1992~2014년 사이 전반적으로 감소세가 지속
 - 반면,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2011년 71.1%에서 2014년 87.8%로 최근 4년 간 증가세
 - 특히, 서비스업 중 부동산·임대 분야가 2011년 62.4%에서 2014년 79.8%로 크게 확대

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. 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.
 주 : 신고금액 기준. 주 : ()는 억 달러.

③ 금융 협력: 중국자금의 국내 유입이 지속 확대

○ 최근 원-위안 직거래 시장개설,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(AIIB) 가입 등 한중 간 금융 협력이 가속되면서 국내 유입 중국 자금도 지속적으로 확대 되고 있음

- 한중 간 금융 협력은 2008년부터 본격화

- 2000~2003년간 한중 금융 협력은 양자 간 협력이라기보다는 2000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(CMI), 2003년 아시아채권펀드(ABFs) 출범 등 다자간 협력으로 성사
- 하지만, 2008년 원-위안 통화스왑프 체결, 2014년 원-위안 직거래시장 개설, 2015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(AIIB) 가입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국 간 금융 교류가 가속

- 이에 따라, 국내 금융 시장으로 유입되는 중국 자금 규모가 급격히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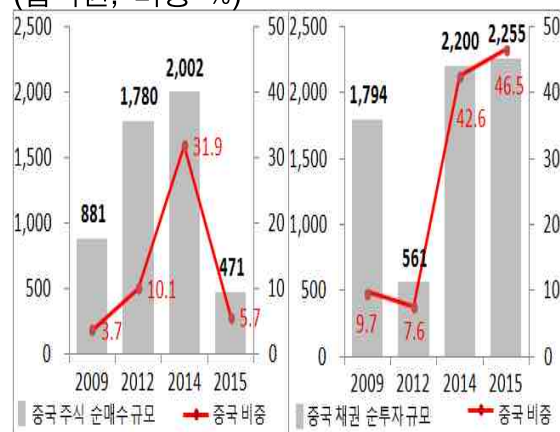
- 국내 주식 시장으로 유입된 중국 자금은 2009년 0.9조원에서 2014년 약 2조원으로 연평균 약 18%씩 증가
- 또, 채권 시장은 동기준 1.8조원에서 2.3조원으로 연평균 5%씩 증가
- 한편, 주식 및 채권의 경우 국내 유입 전체 외국인 자금 중 중국 자금 비중은 2009년 각각 3.7%, 9.7%에서 2014년 31.9%, 42.6%로 지난 6년간 급증

< 한중 간 금융협력 현황 >

시 기	양국 관계
2000년	- 치앙마이 이니셔티브(CMI) 출범
2003년	- 한국은행 중국내 3개 사무소 개설 - 아시아 채권 펀드(ABFs) 출범
2008년	- 원-위안 통화스왑프 체결 - 국내최초 QFII 자격 획득
2014년	- 원-위안 직거래시장 개설 (RQFII 자격부여, 청산은행 지정)
2015년	-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(AIIB) 가입

자료 : 내외신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정리.

< 중국의 對 한국 주식·채권 투자 추이 >
(십억원, 비중 %)



자료 : 금융감독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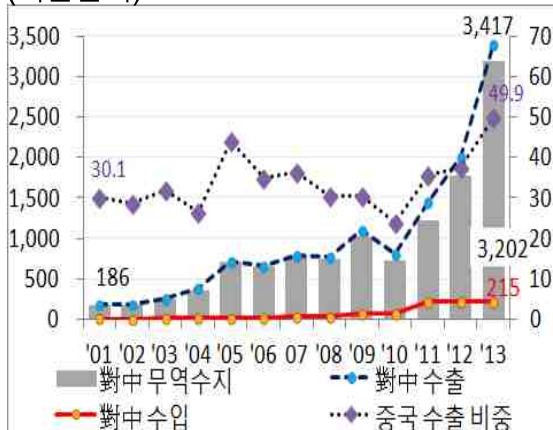
- 주 : 1) 중국비중은 전체 외국인의 순매수 및 순투자 중 중국 비중을 의미.
- 2) 2015년은 6월까지 누적액 기준.

④ 기술 협력: 기술무역 규모는 2001년 대비 2013년 19배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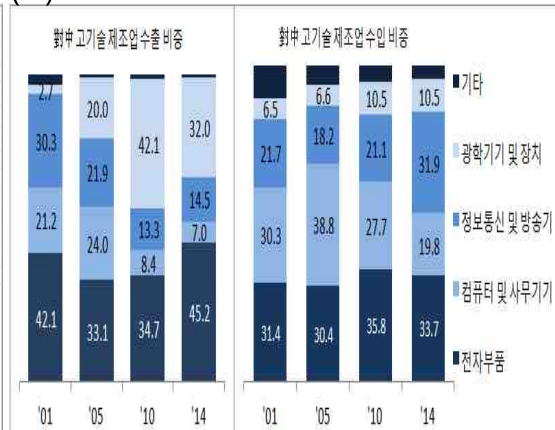
○ 지난 13년 간 한중 기술무역 규모도 지속 확대

- 한국의 對 중국 기술 수출 규모는 지난 13년 간 18배 증가
 - 對 중국 기술 수출 규모는 2001년 1억 8,600만 달러에서 2013년 34억 1,700만 달러로 약 18배 증가
 - 對 중국 기술무역 수지 흑자 규모는 동기간 1억 8,000만 달러에서 32억 200만 달러로 확대
- 한중 간 고기술 산업²⁾ 무역은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진행
 - 對 중국 고기술 산업 수출액 중 전자부품의 비중은 2014년 45.2%로 최대 수출 품목임
 - 對 중국 고기술 산업 수입액 중 전자부품의 비중도 2014년 33.7%로 가장 높은 수준이 지속

< 한·중 간 기술무역 추이 >
(백만달러)



< 한중간 고기술 산업 무역 상품별 비중 >
(%)



자료 :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, 미래창조과학부, 자료 : 한국 무역협회, UN, *Industrial development Report 2013*.

주 : 기타는 의약, 우주항공, 군사용, 발전용 기기, 방사선 및 관련 물질 등이 포함.

2) UN, *Industrial development Report 2013*의 고기술 산업은 SITC 3단위 기준으로 의약(541, 542), 우주항공(792), 전자부품(774,771,776), 컴퓨터 및 사무기기(751,752,759), 정보통신 및 방송기 (764), 광학기기 및 장치 (871,874,881), 군사용(891), 발전용 기기(716,718), 방사선 및 관련 물질(525)로 분류.

⑤ 인적 교류: 인적 교류 규모는 1995년 대비 2014년 약 15배 증가

○ 양국 간의 인적 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, 한국의 對 중국 여행 수지 흑자 규모가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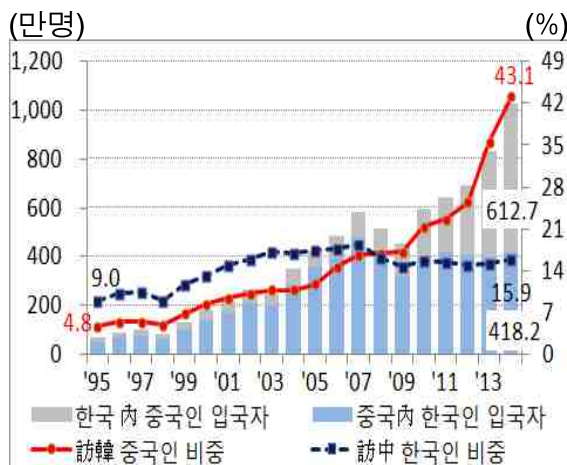
- 양국 간 인적 교류 규모가 지속 확대

- 양국 간 인적 교류 규모는 1995년 70.8만 명에서 2014년 1,030.9만 명으로 14.6배 증가, 동기간 연평균 15.1%씩 증가
- 한국 내 중국 입국자 수는 동기간 17.8만 명에서 612.7만 명으로 약 34.4배 증가, 訪韓 중국인 비중도 4.8%에서 43.1%로 급상승
- 중국 내 한국인 입국자 수도 동기간 53.0만 명에서 418.2만 명으로 약 8배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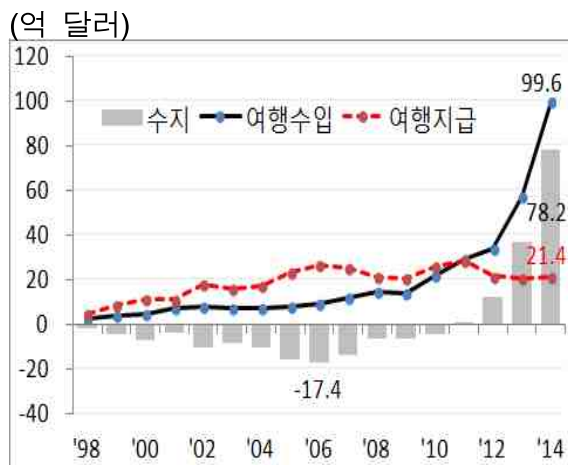
- 더욱이, 한국 내 중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對 중국 여행수지가 2012년부터 흑자 전환하는 등 국내 외국 관광국 중 최대 흑자국으로 부상

- 2014년 對 중국 여행 수입은 99.6억 달러로 1998년 2.8억 달러에 비해 35.6배 증가
- 이에 따라 對 중국 여행수지는 2012년부터 흑자로 전환, 2014년에는 78.2억 달러의 역대 최고 흑자를 기록

< 한·중 간 입국자 현황 >



< 한국의 對중국 여행수지 추이 >



자료 : IMF, CEIC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추정.

자료 : CEIC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추정.

주 : GDP 디플레이터는 각 지역별 물가가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동일 적용.

주 : 지역별 실질 GDP 증가율 평균.

3. 시사점

- **한중 경제 협력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, 국내 경제의 對 중국 의존도 심화에 따른 중국발 리스크 전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**
 - 첫째, 한중 간 경제협력의 지속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
 - 양국 간 수출 및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한중 FTA 등 양국 간 경제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
 - 또, 최근 원-위안 직거래 시 시장 개설, AIB 등 한중간 금융 협력이 강화되는 만큼 향후 아시아 시장의 건설, 철도, 통신 등 적극적인 사업 참여 방안 모색
 - 둘째, 최근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중국발 리스크 대응 방안 모색
 - 최근 중국 경제는 제조업 업황 둔화, 증시 폭락,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 경제 전반의 리스크가 지속 확대되고 있음
 - 이에 따라, 對 중국 수출 감소세 지속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중간재 중심의 對 중국 수출 상품의 경쟁력 강화 모색이 필요
 - 아울러, 증시 불안 등 금융 리스크 확대에 의한 국내 유입 외국인 자금 이탈 등 외환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도 필요
 - 셋째, 혁신형 고부가·고기술 제품 개발 등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미래 유망 산업도 육성할 필요가 있음
 - 최근 전자부품, IT 등 중국의 고부가 품목의 국내 수출이 지속 확대되는 만큼 고부가·고기술 제품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중국 제품과 기술적으로 차별성 유지 필요
 - 또, 정부와 민간 간 R&D 투자에 대한 효율적인 분배를 통해 혁신형 미래 유망 산업 육성 로드맵을 강화
 - 넷째, 중국 간 인적교류의 질적 개선을 통해 국내 여행수지 개선 등 국내 경제에의 긍정적인 영향 확대 노력이 필요
 - 중국과의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한 인재 육성과 교류 프로그램 등을 강화하는 한편, 고부가 한류 문화상품 개발도 지속 지원
 - 또, 관광, 휴양, 의료 등을 연계한 융·복합 관광 서비스 상품 개발 강화 등을 통한 중국 관광객 유입 가속화 노력도 필요

한재진 연구위원 (2072-6225, hzz72@hri.co.kr)
정민선 임 연구원 (2072-6220, chungm@hri.co.kr)